

낙동강가의 자연늪을 지키는 삶과 행동 그리고 생태교육의 현장

이인식

(경남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I. 우포늪의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지정

지난 97년 6월 6일, 국내 최대의 자연늪 창녕 우포늪(소벌)이 환경부에 의해 자연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98년 8월에는 '람사협약'에 의한 국제적으로 보전되어야 할 습지인 '람사사이트'로 지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7여년 간에 걸친 마창환경운동연합과 환경을 생각하는 전국교사모임 그리고 전국의 환경단체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활동과 관심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포늪의 자연생태계보전지역지정이라는 결과는 끈질긴 주민-환경부-시민단체의 노력의 결과였다. 96년 8월 중순에 있었던 우포늪 람사습지지정에 따른 공청회 당시만 해도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가 올 것이라는 이유로 격렬한 반대가 있어서 이렇게 빨리 우포늪에 대한 정부의 보전정책이 시행될 것이라고는 미처 예견을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가 더욱 중요하다. 지자체의 파괴가 진행되어가고 있는 우포늪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라는 큰 과제가 남아있는 것이다. 이것은 역시 자연늪(습지)지키기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과제이기도 하다.

II. 생태계의 보고 자연늪

현대의 대다수 도시인들은 물가에 사는 식물이나 동물을 볼 기회가 잘 없다. 간혹 인공적인 연못이나 조그마한 저수지 근처에서 휴식 시간을 가진다 해도 연꽃, 수련, 갈대 같은 물위에 떠 있거나, 물가에 무리지어 자라는 몇 종류의 수초들을 잠깐 스치듯이 쳐다보고 말뿐이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연못이나 자연늪에는 물속식물들이 물가에서부터 뿌리나 줄기의 일부가 물속에 있고 나머지 대부분은 수면 위에 나와 있는 추수식물들- 갈대, 줄, 개연꽃, 노랑어리 연꽃, 수련, 연꽃, 세모고랭이, 부들 등-로 많은 종이 있다.

다음으로 부엽식물이라 불리는 물 밑바닥에 뿌리나 땅속줄기가 있고 가늘고 긴 잎자루 또는 줄기로 수면에 잎을 띄우고 있는 개구리밥과 마름 등이 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마름의 열매 말뚱(물에서 나는 밤)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있다. 황소뺨 같이 생긴 말뚱을 칼로 두 쪽을 내어 마치 잘익은 알밤처럼 혹은 속좋은 고구마를 먹는 것처럼 속을 파먹었던 어릴적 기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뿌리, 줄기, 잎 등 식물체 전체가 물속에서 생육하는 식물군으로 꽃을 피울 때는 물위로 떠오르므로 자세히 보면 그 존재를 알 수 있다. 우리에게 친숙하지 않은 이름이지만 붕어마름, 나사말 등이 있다. 이렇듯 연못이나 자연늪의 수생식물은 물가에서부터 추수성식물-부엽성식물- 침수성식물 등으로 대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살아있는 자연사 박물관 역할을 자연늪이 하고 있는 것이다.

III. 일터지기 전에 미리 막는 운동.

우리는 이러한 중요한 습지(갯벌, 늪 등)중의 하나인 낙동강가에 자리한 자연늪의 파괴 행위에 맞서 현장 탐사교육과 언론홍보, 그리고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자연늪 지키기 운동을 벌여 왔다. 이러한 자연늪지키기운동의 결정적인 계기를 부여한 것이 낙동강 폐놀오염 사건이었다.

지난 91년 3월 낙동강 폐놀오염 사건은 식수문제를 충격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자연늪은 바다의 갯벌처럼 모든 동,식물들의 산란장이며 서식처이다. 그리고 여름에 강이 범람하면 자연늪 역할을 톡톡히 한다. 특히, 물의 문제가 생명의 문제로 다가온 지금 늪지역의 수초들과 빨이 수질을 정화하고 오염을 제거해 주는 특별한 기능을 선진국에서는 이미 경제적 가치로 수치화 하였다. 이를테면 습지 1ha당 약 40만 달러에 해당하는 수질 정화 비용을 절감해 준다는 것이다.

우리는 자연늪이야말로 살아있는 자연학습장으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라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이 모임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100여 차례의 낙동강과 남강 그리고 황강 유역을 탐사하면서 '지역사 속에서의 환경교육'과 '삶과 환경'이라는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애써왔다.

이러한 활동속에서 지역주민들과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 자연늪이 습지 동, 식물의 변천사와 '삶과 환경'이라는 주제에 걸맞는 가장 좋은 스승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특히 우포늪에서 가물치와 우렁쟁이, 대치 등을 잡아 생계를 꾸려가는 주민들이 자연늪을 얼마나 아끼고 환경을 걱정하는가도 절실히 느꼈다.

IV. 자연늪을 지키는 싸움

마창환경운동연합내에 자연늪지킴이모임, 환경을 생각하는 교사모임 등의 환경운동단체가 낙동강가의 자연늪을 지키기 위해 펼쳐온 운동의 방법을 소개해 보면,

(1) 시민들과 함께하는 생태기행

흔히들 늪은 쓸모 없는 땅으로 인식되어져 왔다. 그러나 숲이나 계곡, 호수 등으로 여행을 가서 그곳의 자연경관이나 야생조류, 수목들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꼈던 것처럼, 자연늪에도 다양한 생태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실제로 확인하도록 92년부터 '시민환경기행'이라는 이름으로 계속되고 있다.

(2)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사계절 자연늪(습지 생태) 학교

봄에는 울숙도의 갈숲에서 계들의 생태와 물풀들의 자람을 관찰하고, 여름에는 우포늪의 왕성한 원시적 자연생태를 관찰, 체험하면서 오감으로 느끼는 풀속에서의 생태교육을 하고 있다. 특히 가시연꽃의 큰잎과 잎을 뚫고 나오는 꽃을 보면서 자연의 신비함을 알고, 교과서에서는 부레옥잠만 배우지만 이곳에서는 물옥잠 등 많은 물풀들을 보면서 여름을 보낸다. 가을에서 겨울 그리고 이른봄까지는 주남저수지를 비롯한 우포, 울숙도는 새들의 천국이 된다. 이렇게 야외에서 다양한 생태 체험을 매년 계절별로 습지 학교를 통하여 가지고 있다. 여름의 우포늪에서의 습지학교와 겨울 주남저수지에서 겨울철새 탐조 교육은 이곳만의 독특한 생태학습이다.

1) 생태교육 프로그램의 실제 (봄, 여름 교육)

우포늪(소벌)은 4개의 원시 자연늪으로 소벌-나무개벌(목포)-사지포-쪽지벌로 나누어져 있다. 봄,여름에 가장 자연스럽게 학습을 할 수 있는 코스는 2KM의 거리를 걸다가 잠시 멈추어서 늪의 냄새와 새소리, 식물들을 만져보고 맛도보고 관찰하며, 물속에서 질펀질펀한 펄을 밟으며 부드러움을 느끼면서 물방개나 게아재비, 물자라를 채집하며 기뻐하는 시간이다. 이것을 쉽게 글로 나타내 보자.

<우포늪에서 어린이들이 관찰 할 수 있는 것들>

- ①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장재마을 입구 간판이 있는 곳에서 아이들이 걷기 시작한다.
- ② 양파가 잘 자라고 있는 들길을 따라 5분 정도 걸으면 작은 수로를 만나고 이내 눈앞에는 나무개벌에 자리잡은 왕버들 군락을 맞는다.
- ③ 왕버들 군락지는 우포늪의 상징물이다. 마치 정글을 연상하게 한다. 이곳에서 잠시 멈추어 서서 숲을 바라보면서, 잠시 침묵하는 시간을 갖는다. 흰뺨검둥오리, 물닭 등 오리류와 왜가리, 백로 그리고 피꼬리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다

-봄에는 자운영이 왕버들 아래를 붉게 물들인다.

-장마비가 오면 왕버들 군락이 물에 잠기면서 정글 같은 느낌이다.

-반대편 나무에는 왜가리, 찌꺼리, 소쩍새, 백로 등이 둥지를 틀고 있다.

④ 그리고 50M쯤 앞에 있는 우포늪 안내판을 읽게 하고, 질문을 받는다.

⑤ 나무개벌(목포늪)을 바라보면서 아이들은 걷는다(늪 한쪽은 논밭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방아개비나 여치 등을 잡기도 하고, 실잠자리, 밀잠자리를 잡느라고 분주하다)

-잡자기 많은 하루살이와 잠자리 등을 보면서 아이들은 이리 저리 뛰어 다닌다.

-가시연이 늪 수면을 넓게 차지하고 개구리밥과 마름, 자라풀들이 녹색 용단을 만들어 놓았다.

⑥ 10분 정도 걸으면 속칭 '왜가리 자연학습장'이 나온다. 이곳은 92년부터 물풀과 물속 곤충 그리고 왜가리 등 여름새를 잘 관찰할 수 있는 곳이다.

수생식물1	수생식물2	수생식물3	수생식물4	수생동물5	수생동물6	기타동물7
두둥 떠 다니는 개구리밥	얕은 물 위에 뿌리는 땅 속에	물속에 잠겨사는 붕어마름	물풀의 천국 우포 습지의 생태	물속의 곤충들	물속의 어패류	여름철 새와 절지동물들
개구리밥 자라풀 생이가래 등 11종류의 부수식물	가래, 노랑어리연꽃 마름 등 4종류의 부엽식물	붕어마름 검정말 물수세미 등 13종류의 침수식물	물 깊이에 따른 물풀의 분포 가장자리 갈대, 줄, 부들, 창포	잠자리 에벌레, 물자라, 게 아재비 물장군 물방개 등	말조개 논우렁이 물달팽이 송사리 각시붕어 등	왜가리 물닭 논병아리 새뱅이 보리새우 등

-교사와 함께 물속으로 들어가서 모둠별로 활동한다(채집 망에 조별로 모음)

-모둠별로 채집한 것을 친구들끼리 분류하여 늪 속의 동식물의 특징을 관찰한다.

-수생식물과 육지식물의 살아가는 방법을 비교해 본다(공기주머니를 가진 수생식물)

-준비물: 뜰채, 패트병, 돋보기, 관찰기록장, 여벌옷 등.

-이곳에서 아이들은 물장난도 하고, 진흙 마사지를 하면서 자연늪과 친화력을 가진다.

-새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계속 관찰 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재미난 모습이 나오면 친구들에게도 알려서 함께 탐조한다.

⑦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옷을 말린다.

⑧ 10분 정도 늪 길을 걸으면서 멍석딸기도 따먹고 패랭이, 메꽃, 청설모 등 주변의 동식물을 본다.

⑨ 주민들이 사는 소목마을에서 시원한 지하수로 목과 온몸을 적신 뒤에 동네어른의 안내로 가물치 양식장을 방문하여 주민과 늪과의 관계를 안다.

-주민들은 늪에서 논우렁과 붕어 등의 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고, 작은 고기를 잡아 가물치 양식장에 먹이로 사용함을 설명한다.

-황소개구리, 베스 등 외래종의 유입으로 토종 물고기가 줄어들어 주민들이 경험한 사실을 듣는다.

-주민들도 늪이 오염되면 생계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낚시꾼이나 주변의 오염을 감시하는데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⑩ 마을의 그늘진 곳에서 점심을 먹는다.

⑪ 마을을 출발하여 우포늪(소벌) 독방에서 철새 관찰을 한다.

-수초사이에 물풀을 이용하여 둥지를 튼 논병아리나 쇠물닭, 물닭 등의 물새를 탐조한다.

-새들의 움직임과 소리를 보고 들으면서 생태현장의 살아있는 것에 대한 아름다움을 깨닫는다.

⑫독방을 걸으면서 주변의 들쭉을 20개정도 채집한다.

- 작은 숲에서 들쭉을 이용하여 여치집이나 곤충 모양을 만든다.
- 숲속에서 오늘의 활동을 글쓰거나 그림 등으로 표현하고, 발표도 해본다.

늪에서 모든 활동을 마치고

자연 늪에서 체험 활동을 마치고 '우포생태학습원'까지 4KM의 길을 걷는다. 조금전까지는 학습을 위한 길이었지만, 지금은 작은 하천을 통나무로 건너고, 가끔은 갈대 숲을 헤쳐 나가는 자유의 길이다. 줄지어선 포플라 사이를 지나자, 내버들 군락지 아래의 흰뺨검둥오리들이 부지런히 수초와 벌레를 잡고 있는 모습을 아이들이 찾아내고는 즐거워한다. 어른들도 독방 위를 걸으면서 풀벌레들을 잡아보고 살아있는 것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어릴적 추억에 잠긴다. 모두들 늪 안에 담겨 있는 검붉은 노을을 보며 걷는 길에 둔터 마을에서 밭짓는 내음에 발걸음을 재촉한다.

“우포생태학습원”에서 밤을

저녁 식사가 끝나면 밤8시, 그러나 여름밤은 늦게 온다. 풀벌레 소리와 두견이 소리를 들으며 짙·푸로 자연의 모습을 만들어 보는 시각. 모두들 표정이 진지하다. 이 시간만은 강사의 빠른 손놀림에 감탄하며 열심히 만들기에 참여한다. 모기가 물어도 미처 모른 채 손과 눈만이 부지런히 움직인다. 잠시 휴식이 있을 후 품평회가 있고 창 밖 하늘을 본다. 간혹 장마비로 별을 가슴으로만 보는 날도 있지만, 견우와 직녀가 또렷이 보이는 밤은 운동장에 자리를 깔고 아예 눕는다. 강사는 후레쉬로 하늘을 비추며 주저리 주저리 열린 별의 전설을 들려주며 깊은 밤을 만들어 간다. 아이들은 잠들고 어른들은 별을 추억으로 담고 있다.

별을 다 헤지도 못한 사람들이 다시 물안개를 찾아 떠난다.

간혹 총명한 아이들도 새벽녘의 물안개와 생명의 살아 있음을 보기 위해 어른들과 함께 길을 나서기도 한다. 지난밤 별 헤기가 싫증이 난 사람들은 반딧불을 찾아 쏘다녔다. 이들은 아예 하룻밤잠이야 하고 밤을 지낸 사람들로 물안개도, 반딧불도, 별 헤는 밤도 모두 갖고 싶어하는 욕심쟁이들이다. 그러나 진정 이들이 자연 속에서 도시의 지친 마음을 다 풀어 버리고 떠난다.

2) 겨울철새 탐조 프로그램

① 둔터 마을 입구에서 시골집의 흙담을 따라 걸으면서 마을 주민을 만나면 반갑게 아이들이 인사한다.

- 아이들이 큰 소리로 인사하면 시골의 노인들은 기분 좋아한다.
- 시골 마을에서 만나는 몇 마리의 누렁소를 보고 아이들이 직접 짚풀 여물을 주면서 기쁨을 느낀다.

② 마을을 벗어나 15분 정도 들길을 따라 걸어서 독방 아래에서 도착한다.

- 들쭉을 한 잎씩 물고 독방 허리에 누워 하늘을 바라본다.
- 눈을 감고 자연의 소리와 느낌을 갖는 시간이라는 교사의 설명에 겨울 햇살과 바람소리, 떼지어 날고 있는 기러기 그리고 늪 속에서 놀고 있는 고니, 오리류 등의 소리를 듣는다.

③ 아이들에게 3가지 중에서 먼저 선택하고 싶은 것을 고르라고 이야기한다.

- 독방 주변의 풀숲에는 새들의 깃털이나 흔적을 찾아보는 것.
- 독방 위에 설치된 망원경을 통하여 새를 탐조하는 것.
- 놀이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독방 위에서부터 구르기 하기.

④ 망원경으로 탐조를 할 때는 사용법에 대한 간단한 실습과 가능하면 낮은 자세로 탐조를 할 수 있도록 알려준다.

- 새들의 먹이 먹는 모습, 헤엄칠 때의 동작, 나는 모습 등을 잘 관찰하게 한다.
- 잠수성 오리의 행동과 고니처럼 물위에 떠서 물 속의 수초나 생물을 잡아먹는 행동을 자세히 비교해 본다.

- ⑤ 탐조를 하면서 틈틈이 관찰한 내용을 관찰 학습장에 기록한다.
 - 가장 눈에 잘 띄는 새의 무리부터 숫자를 세어본다.
 - 관찰 학습장에 글쓰기와 특징을 그려본다.
- ⑥ 진흙과 황토를 이용하여 모둠 별로 새의 모양을 만들고 친구들과 상호 평가한다.
 - 새의 생태를 관찰한 후 그들의 움직임을 몸짓으로 표현해 본다

(3) 초·중등학교 교사 중심의 습지 공부와 연수행사 주관

낙동강 유역에 산재한 습지를 중심으로 공부모임이 구려진 것이 ‘환경을 생각하는 교사모임’이다 부산, 경남지역의 환경소재로 적합한 자연늪 보존을 위하여 교사들이 분기별로 상호 교류하면서 연수회도 개최하고 있다. 94년 여름과 95년 겨울에 환경을 생각하는 전국교사 모임 연수가 낙동강가의 습지에서 개최되었고, 그리고 96년 여름 환경교사연수도 2박 3일동안 우포늪에서 있었다. 덧붙여 경남교육청의 환경교사연수에도 자연늪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지금까지 부산지역에서는 을숙도를 중심으로, 경남지역은 주남저수지와 우포늪 등을 대상으로 하여 현지에서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공부를 하기도 하고, 단위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직접 데리고 낙동강 유역의 자연유산을 함께 탐사하여 왔다. 작년과 금년에는 멀게는 강화도 갯벌 탐사와 서산간척지, 금강하류 등을 기행하면서 습지와 조류 학습을 하고 있다.

(4) 지역주민들과의 정기적인 간담회

우포늪가의 소목, 장재 등의 주민들은 논우렁이, 대치, 가물치, 붕어, 잉어 등을 잡아서 살아가고 있다. 그들도 최근에는 두가지 고민에 빠져 있다. 첫째는 늪으로 유입되는 화학비료와 폐수, 황소개구리등으로 인하여 물고기의 종과 개체수가 현저히 줄어 들고 있고, 동시에 인근의 양파, 마늘, 감자 재배지가 늘어 나면서 수위가 낮아져 가물치 양식장의 먹이 부족 문제와 생계에 대한 위험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두번째는 우포늪에 대한 보존의 당위성이 대두되면서 그나마 늪에 의존하여 살아온 삶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환경운동단체는 여러가지 대안들을 제시하면서 오히려 자연생태계 보존이 될 때, 우선 첫번째 문제를 해결 할 수 있고, 과거 전남 백운산을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할 때 고로쇠의 수액 채취권은 그곳 주민에게 생존권 보장차원에서 돌려 준 예가 있다며 이곳도 정부가 보전조치를 내릴 때는 충분한 협의가 있을 것이라는 논의를 하면서 이곳을 지키고 가꾸는데 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후, 자연환경법의 개정과 습지보전법의 제정을 통하여 주민들의 삶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보장하였다.

(5) 습지 파괴에 항의하는 집회 조직

우포늪이 97년 생태계보전지역이 된 후에도 지자체는 과거 도로 계획이 있었다는 이유로 반딧불의 서식처와 야생동물의 이동 통로인 습지주변의 숲을 훼손하여 환경단체의 반발을 샀고, 이미 언론을 통하여 알려진대로 주남저수지와 연결된 철새들의 보금자리인 동판저수지의 습지를 침범하여 지어지고 있는 군무원아파트는 창원시민과 환경단체 그리고 조류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대표적인 환경파괴 지역이다. 예년 같으면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남서쪽 물가에는 수백마리의 오리떼가 먹이를 찾으며 놀던 곳인데 금년 겨울에는 아예 오리류들이 그곳 접근을 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값싼 땅이라 하여 습지를 메워서 사용하는 일이 명색이 세계적인 철새도래지라는 곳에서도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환경단체의 항의 집회가 없었겠는가. 오랫동안의 국방부와의 대립끝에 그곳의 오염방지를 위해 오폐수처리장을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환경단체와 창원시가 쏟았던 종결을 한 상태이지만, 습지보호를 위해서는 국방부와 환경부 그리고 지방정부가 지속적인 공동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물론 환경단체는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새만금갯벌 파괴와 마산만 매립 문제 등으로 습지보전단체들이 격렬하게 항의 집회를 갖고 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민간단체가 생태적으로 중요한 곳을 지속적으로 지키고 가꾸려는 노력이 우리지역과 우리나라에

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외국에서는 주민들이 앞장서서 쾌적한 환경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실정이다. 92년 리우환경회의와 96년 호주 브리스벤의 랍사회회에 참가하여 많은 경험을 했다. 특히 호주의 분달 습지보존운동은 우리에게 모범이 될 만한 사례였다. 분달 지역의 주민들은 그 지역을 대대적으로 정부가 개발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개발 이익이 그들에게 돌아올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람사사이트’로 지정을 신청하여 세계적인 습지생태관광지역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제 우리도 주민과 정부가 함께 쾌적한 환경을 가꾸는 일에 재정과 기술을 보낼 때이다. 우리지역의 습지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위에서 나열하였다. 그리고 몇가지 활동 주제만 덧붙여 보자.

- (6) 우포늪을 중심으로한 상시적 수질 측정
- (7) 습지 보전을 위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
- (8) 언론사와 함께하는 습지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기획 프로그램 제작
- (9) 각종 언론사에 습지의 파괴 현장을 제보하여 주민과 지방정부의 의식변화 유도
- (10) 낙동강 유역 환경단체와 서해안 지역의 환경단체간에 습지연대회의 제안
- (11) 세계환경의 날을 기념하는 큰 행사들을 자연늪이 소재한 현장에서 지방정부, 교육기관,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치름
- (12) 우리나라의 습지보전단체와 일본의 습지보전단체간에 한일간 연대회의 조직
- (13) 습지보존을 위한 국제적인 네트워크 조직 등.

이러한 활동에 덧붙여 우리민간단체가 정부와 함께 할 수 있는 제안을 한가지 해본다면 지난 96년 호주와 99년 코스타리카 랍사회회에 참가한 많은 비정부조직들은 당사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습지 보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우리도 이번 기회에 실질적인 습지의 보전을 위한 조사작업과 재정지원 그리고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기관과 지방정부 그리고 지역의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습지보전을 위하여 가칭 ‘습지위원회’를 조직하여 국민의 자연학습장이며 휴양시설이기도한 낙동강가의 습지와 서해안의 갯벌이 현명하게 이용 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공동작업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V. 습지의 현명한 이용을 위한 보전 대책 제안

“자연을 탐방, 환경의 소중함과 환경파괴의 아픔을 현장에서 체험하는 생태기행이 새로운 환경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자연늪지킴이모임도 92년 발족 이후 창녕 우포늪, 창원주남저수지, 부산 울속도 등 낙동강 늪지대 10여곳을 탐방하고 있다. 이들은 높은 바다의 갯벌처럼 모든 동식물의 산란장이고 서식처이며 여름에 강이 범람할 때는 자연댐 역할을, 또 늪의 수생생물은 수질 정화작용을 한다는 것을 깨우쳐 늪 보전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것.”(부산일보, 95. 7. 22일자)

습지의 생태적 가치와 이익에 대한 대중의 인식부족이 습지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있어서 주요 걸림돌이다. 과거에 정부와 비정부 기관에 의해 이루어진 다양한 교육과 대중인식 확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자연세계로부터 격리되어 도시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은 습지의 가치를 모르고 습지가 사람에게 주는 엄청난 혜택도 인식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초기의 인식을 성숙시키는 교육방법의 절실하다.

교육은 정보를 제공하고 인식을 높이는 것만 뜻하는 것은 아니다.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교육의 궁극적 목표이다. 첫 단계로 인식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활용되는 자원이 반드시 행동과 태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습지에 관한 교육은 해당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습지보존에 참여하게 하는 메커니즘을 만드는 데 초점 맞추어져야 한다. 사후 대응적이기 보다는 사전 예방적이어야 한다. 비공식적, 대중 접근적 습지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비정부단체(NGO)들이 자금지원을 받아서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비정부단체와 지역정부가 연계를 하면, 중요 습지가 있는 모든 지역에서 특히 성과를 거둘 수 있을것이다.

교육계획을 세울 때 교육대상을 잘 선정해야 한다. 광범위한 대중의 인식을 증대시키기 보다는 다음과 같은 주요 교육대상을 공략한다. 정규교육 시스템을 통해 학생을 교육시켜서 미래에 개인 국민으로 만든다. 비정규 교육을 통해 보다 넓은 지역사회를 계몽시킨다. 그 외 정치인, 정부관료, 농민, 어민, 정

책결정자, 토지관리자, 토지보호단체, 자연보호론자들을 교육대상으로 한다. 또한 중요한 교육대상 중 하나가 개발 로비 단체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개발 로비 단체가 주도하는 수많은 개발계획들이 환경에 가져올 파급효과를 아예 무시한 채 단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환경적 인식을 높이는 중요한 방법 중에는, 알기 쉬운 도로표지의 설치와 야생동물을 촬영하기 위한 잠복장소와 망원경의 설치가 있다. 예를들어, 교육적 홍보를 통해서 조류와 그 둥지가 왜 자연 그대로 보존되어야 하는가를 사람들이 이해하게 되면, 개발제한의 주장이 무리없이 이해될 것이다. 이처럼 습지보존에 경험을 가진 나라들의 예를 참고로 하여 우리도 다음과 같은 제반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환경선진국'이 하루 빨리 될 수 있을 것이다.